

자고 나면 역대급 신규 확진...코로나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

광주 1만5838명·전남 1만2129명 확진...3만명대 육박 전국 '60만명' 대 폭증...정부, 18일 조정안 확정할 듯

광주·전남에서 감염 속도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자고 나면 최대 신규 확진기록이 바뀔 정도로 감염세가 거세다.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다인 하루 60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만 5838명, 전남 1만 2129명 등 2만 7967명이 확진돼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다.

광주·전남에서 0시 기준 지난 15일 2만 2627명, 16일 2만 7691명 등 사흘 연속 2만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6곳에서 각각 10~62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모든 시·군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목포 2043명, 순천 1956명, 여수 1906명, 광양

996명, 나주 727명 등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어 무안 672명, 해남 438명, 화순 413명, 영암 354명, 고흥 314명, 영광 292명, 강진 263명, 완도 254명, 담양 221명, 장흥 214명, 장성 203명, 곡성 182명, 보성 163명, 함평 149명, 구례 145명, 진도 121명, 신안 102명 등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6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집단검사 기준 확대와 전남·전남의 확진자가 추가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 1328명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인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 상당수가 포함될 데다 전남(누락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 "전문가와 당국 예측 모형을 종합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당초 예측치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유행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재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응 체계에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날 400명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망자와 관련해선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 정도가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현행 거리두기 중료를 앞두고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의료 전문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



코로나19 확진자수가 62만 명대를 넘어선 17일 광주 북구 상사 선별진료소 대기 장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으로 15분 만에 확진 판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검사자들이 분산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80%로 늘려달라”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 등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협의회는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을 돌파한 상황

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공동성명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가 국민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사업과 같이 국비 부담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집단격리 정신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집단격리 정신요양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정신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준하는 관리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계약 의사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간호사 3~5명으로, 24시간 상담 및 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 운영체제를 갖춰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정신요양시설 내 확진자는 재택치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환자와 충분한 1대1 상담이 곤란하므로, 담당 간호사를 통해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한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한다.

관리 대상은 해당 시설의 확진 환자로 한정하며, 병상 이동이나 격리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신요양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 시 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신요양시설 병상 대기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MZ세대 소통웹진 ‘왔소’ 오픈

광주만의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담아...25일까지 이벤트

광주시가 MZ세대(1981~2010년 출생)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잡지(웹진) ‘왔소’를 오픈했다.

소통웹진 ‘왔소’는 짧은 동영상(숏폼),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와 이야기를 통해 광주의 매력을 알린다. 명칭은 손님을 맞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글자 디자인도 어깨동무하고 소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해 ‘사랑, 소통,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왔소의 첫번째 주제는 ‘덕질’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열정적으로 파고들어 즐기면서 사는 삶을 조명했다. 사막을 달리는 ‘오지 레이서’ 김여일 씨, 고향 광주를 알리는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씨, 비건 식당을 발굴하는 ‘비건 탐식단’, KIA 타이거즈·광주FC·AI 페퍼ச்ச포트 트츠, 트로트 가수 임영웅 팬으로 하나가 된 가족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게임 전문 캐스터 허준 씨가 체험한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단관 극장 ‘광주극장’ 등 지역 볼거리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명 작가와의 협업, 시민들의 참여제작 콘텐츠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광주의 매력을 다채롭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한 ‘왔소’는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검색 기능 강화 ▲관심 키워드 설정 ▲개인 소셜미디어(SNS) 공유 등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개봉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전라도 사투리 번역 이벤트도 진행한다. 왔소 홈페이지(www.news.gwangju.go.kr)에서 영화·드라마 명대사와 노래 가사를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 맛글을 달면 우수작에 소형 거친과 커피쿠폰 등 상품을 준다.

정종임 광주시 대변인은 “지자체의 홍보방식은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유행과 변화에 따른 콘텐츠 발굴해 보고 즐기는 광주 대표 웹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상반기 중 예산 4조3400억 신속 집행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예산 4조34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3조 8700억원)보다 47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시 분청 3조 5070억원, 자치구 5200억원, 지방 공기업 3130억원이다.

광주시는 신속 집행 지원단을 운영해 매수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특히 소비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금을 최대 80%까지 확대 지급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 완료하는 등 신속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기준 광주시 예산 집행률은 24.3%로

대구(22.2%), 부산(22.1%) 등에 앞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박갑수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재정 집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금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상가건물
다량부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병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자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주제출공고)
주식회사 덕암솔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세화전기(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2년 03월 16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재산(영역)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및 “갑”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합병 제530조의 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8일

“갑” 주식회사 덕암솔라 전라남도 광양군 남면 나노산단5로 6-20 대표이사 김경배
“을” 주식회사 세화전기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184 (영랑동) 사내이사 이영근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주제출공고)
부림전기주식회사(이하 “갑”)와 에스에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을”)는(은) 2022년 3월 17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8일

“갑” 부림전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근분로 125-2 (월산동) 대표이사 지충성
“을” 에스에이씨엔씨 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공평3길 14-3 대표이사 이시연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무연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묘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주소: 나주시 소재지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포리 115-11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2022년 03월 18일 ~ 2022년 06월 19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언으로 정한 후 인공조각 개장 나 무연묘로,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공조각 인의개장
5. 개장비용: 개장비용 전액 현금으로 미리 결제(80%현금/20%현금)
6. 신고처(신고장소): 주소와 동일 (010-6611-8580)
7. 신고기간: 연일로부터 10일
8. 신고요령: 신고(연고)하는 사친에 분묘사친 유행하시고 개장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가족, 제적 등)를 기러신확인자료)등을 구하여와 장기 신고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가 개장공고 후 위의 동일지번내에서 신분이 곤란하여 무연묘 분묘 및 유가족 확인되는 분묘의 공고는 같은 내용이라도 이 공고에 갈취됩니다.
2022년 3월 18일
공고인: 소유자유진호

산행안내
3월20일(일)
▲광주키산악회 3월20일(일) 원주·소금산·간현봉·산행&출렁다리전도길*트레킹*염주체육관05:00,동야병원05:05,롯데백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누차장05: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동 명 222-9054 • 중 양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북 신 673-6836 • 진 월 671-7276	• 백 윤 651-1833 • 송 하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운 천 376-7153 • 풍 임 603-0311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